



부담이 낮은 알짜배기 신규상장

강화된 심사 기준을 통과한 신규 상장 종목의 펀더멘털이 우수하고, 밸류에이션 또한 보수적으로 산정되는 경향이 있음. 인투셀, 디앤디파마텍 등 시장 친화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장 후에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나타냄. 향후 상장이 예상되는 뉴로핏, 지투지바이오, 알지노믹스 등은 현재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 중이거나, 기술이전 실적 보유. 상장 이후 추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장 초기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을 때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상장 종목을 봐야하는 이유. 싸고 좋다!

- >>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신규 상장 건 수는 '23년 12건으로 가장 낮았고, '24년 19건으로 점차 회복. '25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10건이며, 공모 금액 기준으로는 '23년 연간을 넘어섰음.
- >> 기업가치 논란이 있었던 '23년 파두 사태로 '뺨튀기 상장' 논란 방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 시행. **기업공개 심사 통과가 예전보다 어려워졌고, 밸류에이션 또한 보수적으로 산정되고 있음.**
 - 신규 상장법인 공시 의무 대폭 강화. (예, '25.7월부터 직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 상장 직전 분기 실적 공시 등)
- >> 어려운 환경 속에도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펀더멘털이 견고하고, 저평가된 가치로 상장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올라오는 신규상장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시장의 관심이 높을 신규 상장 종목

- >> 지난 5월 상장한 인투셀과 이문은시아의 경우 상장일 증가가 공모가격 대비 약 100% 상승 마감하였고, 청약과 수요예측 경쟁률에서도 모두 흥행.
- >> 상장 심사 통과 기업 중에서 **뉴로핏과 지투지바이오**, 심사 추진 기업 중에서는 **알지노믹스** 주목.
 - **뉴로핏:** AI 기술 기반 뇌 영상 분석 솔루션과 치료 의료기기 연구개발 기업으로 로슈와 릴리 협업 중. 공모 예상 시가총액 1,309억 ~ 1,607억 원. 수요예측 7/4~10일.
 - **지투지바이오:** 1개월 동안 약효 지속되는 서방형 주사제 개발 중으로 베링거인겔하임과 협력 중. 공모 예상 시가총액 2,683억 ~ 3,242억 원. 수요예측 7/15~21일
 - **알지노믹스:** 기술성평가 A,A 획득. RNA 편집 기술 보유 업체로 릴리에 난청치료제 \$1.3bn 기술 이전 성공.

최근 제약/바이오 신규상장 기업 현황 ('24년~'25년 상반기)

사명	상장일	공모가격	청약경쟁률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	공모금액 (억 원)	상장일 증가/공모가	공모가 대비 현 수익률
지씨지놈	2025-06-11	10,500	484.09:1	547.47:1	420	5%	-6.7%
인투셀	2025-05-23	17,000	2269:1	1151.5:1	255	95%	130.0%
바이오비쥬	2025-05-20	9,100	1133.52:1	1094.25:1	273	102%	86.8%
이문온시아	2025-05-19	3,600	913.24:1	897.45:1	329	108%	36.8%
로킷헬스케어	2025-05-12	11,000	80.44:1	368.45:1	172	34%	41.4%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21,000	858.5:1	1066.90:1	252	52%	46.6%
동국생명과학	2025-02-17	9,000	15.2:1	117.83:1	180	39%	4.0%
오름테라퓨틱	2025-02-14	20,000	2.11:1	16.93:1	500	9%	-13.5%
동방메디컬	2025-02-13	10,500	106.3:1	910.14:1	315	-8%	24.7%
아스테라시스	2025-01-24	4,600	1791.34:1	1242.4:1	168	44%	172.8%
엠에프씨	2024-12-26	-	-	-	148	1%	-41.0%
파인메딕스	2024-12-26	10,000	1643.46:1	1260.25:1	90	-37%	-26.3%
듀캠바이오	2024-12-20	8,000	172.67:1	47.73:1	114	14%	26.3%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9	13,000	91.88:1	198.96:1	202	33%	82.5%
온코크로스	2024-12-18	7,300	1312.94:1	635.05:1	104	23%	70.3%
토모큐브	2024-11-07	16,000	39.94:1	967.71:1	320	-37%	75.9%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23,000	672.17:1	1220.68:1	160	-29%	-9.4%
셀비온	2024-10-16	15,000	1065.46:1	1050.19:1	287	38%	36.8%
이엔셀	2024-08-23	15,300	928.06:1	949.3:1	240	12%	-11.9%
티디에스팜	2024-08-21	13,000	1608.17:1	1331.2:1	130	300%	-14.2%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29,000	65.83:1	356.95:1	290	-18%	60.5%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10,000	1094.66:1	1011.50:1	223	34%	-66.0%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10,000	517.7:1	1233.80:1	162	-17%	-68.2%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17,000	1436.96:1	1084.39:1	221	9%	36.2%
라메디텍	2024-06-17	16,000	2140.38:1	1115.44:1	208	53%	-50.4%
디앤디파마텍	2024-05-02	33,000	1543.97:1	848.50:1	363	11%	320.3%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13,000	2654.19:1	865.73:1	325	177%	-35.5%
오상헬스케어	2024-03-13	20,000	2126.13:1	993.21:1	198	47%	8.0%

주1) 현재 기준 2025/06/23

주2) 엠에프씨는 SPAC 소멸합병 상장으로 공모가격이 없어 상장일 시초가 대비하여 평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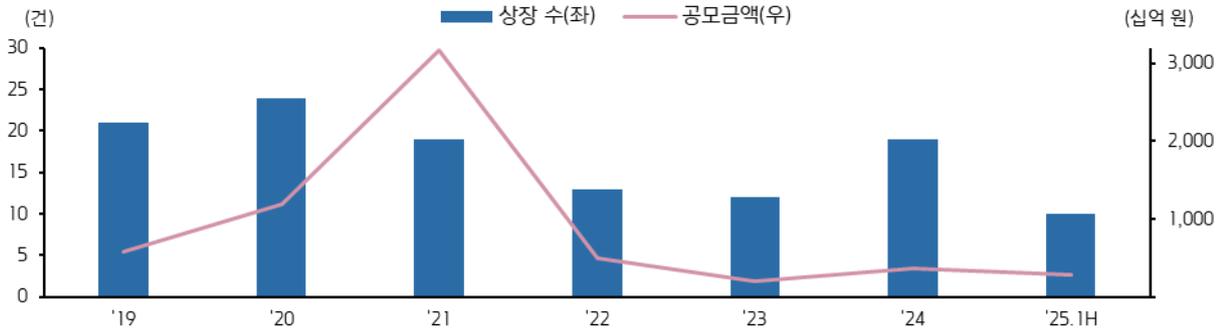
자료: KIND, 38커뮤니케이션,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신규 상장 예정 제약/바이오 기업 현황

	회사명	사업내용	상장예정일	상장주선인
상장심사 통과	프로티나	단백질 빅데이터 플랫폼	'25년 7월 21일	한국투자증권
	아이티캠	의약품 원료(API), OLED 재료	'25년 7월 중	KB증권
	뉴로핏	뇌질환 타겟 인공지능 솔루션	'25년 7월 중	미래에셋증권
	지투지바이오	장기 약효지속형 주사제	'25년 8월 중	미래에셋증권
상장심사 중	노벨티노빌리티	항체약품 개발	-	신한투자증권
	젠바디	진단용 종합 솔루션	-	한국투자증권
	세레신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	하나증권, 삼성증권
	리브스메드	외과용 수술기구 개발	-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명인제약	중추 신경계 치료제 개발	-	KB증권
상장심사 추진	알지노믹스	유전자치료제 개발	-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자료: 각 사, KR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제약/바이오 신규 상장 기업 건 수와 공모 금액 추이



자료: 각 사, KR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24일 현재 상기 언급된 종목들 중 '동방메디컬'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그 밖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은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